

바이오협회, 판교바이오센터 착공

한국바이오협회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국내 최대의 바이오기업 집적시설인 판교바이오센터를 건설한다.

바이오협회는 6월24일 성남시 신축부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.

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판교테크노벨리 내 B-2-1 필지에 대지면적 3346평, 건축연면적 1만8013평에 지하 3층, 지상 9층의 건물 3개동이 들어설 예정으로 국내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판교바이오센터는 약 21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1년 4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cGMP 등 첨단시설 및 연구개발, 연구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.

대화제약을 비롯해 성원애드록제약, 화일약품 등 제약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인 바이오니아, 서린바이오, 에이치엘비(구 라이프코드), 오스코텍, 이큐스팜, 크리스탈지노믹스, 폴리플러스 등과 제넥신, 진매트릭스 등 코스닥에 등록 예정인 바이오 기업을 포함한 21개 중견 바이오기업과 한국바이오협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·입주하게 된다.

한국바이오협회는 센터 건설사업을 제안하고 대표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연구개발, 사업개발, 투자유치 등 공동협력 사업을 개발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.

또 순수 민간자본에 의한 제2, 제3의 바이오기업 집적시설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바이오 민간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09/06/23>